

국 외 소 식



유전자변형 염소로 설사차단 젖 생산

염소를 유전자변형시켜 설사를 막는 젖을 생산하는 기술이 개발됐다.

미국 데이비스 캘리포니아 대학의 짐 머레이 박사는 ‘형질전환유전자 연구(Transgenic Research)’ 8월호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인간의 젖에 들어있는 항박테리아 효소 라이조자임 유전자를 염소에 주입, 설사를 막는 이 효소가 들어있는 젖을 얻는데 성공했다고 밝힌 것으로 헬스데이 뉴스가 8월 8일 보도했다.

머레이 박사는 이 유전자변형 염소의 젖을 염소와 돼지 새끼에 먹인 결과 장(腸)박테리아의 분포가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라이조자임은 모든 포유동물의 젖, 눈물, 침에 들어있는 단백질로 장의 염증과 설사를 일으키는 박테리아의 성장을 억제하는 한편 장에 있는 유익한 박테리아의 성장을 촉진한다. 염소의 젖에 들어있는 이 효소의 양은 사람 젖에 들어있는 것의 0.06%에 불과하다.

이는 생명공학 기술을 통해 사람 젖에 들어있는 유익한 성분들이 동물의 젖에도 생산되게 하여 가축의 젖 성분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준 것이라고 머레이 박사는 말했다.

연합뉴스 / 2006년 8월 9일

논란빛은 태국 코끼리 8마리 호주행

태국산 코끼리 8마리가 1년 6개월간 지속된 동물보호운동가들의 반대를 뒤로 하고 마침내 호주행 비행기에 올랐다.

방콕 동남쪽 150km의 우타파오 공항 관제탑 관계자는 7월 30일 오후 1시30분(현지시간)에 문제의 코끼리 8마리를 실은 러시아제 수송기가 활주로를 이륙했다고 밝혔다. 이 수송기는 4시간50여분의 비행 끝에 인도해에 접한 호주의 코코스 섬에 도착할 예정이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들 코끼리는 전날 밤에 칸차나부리 주에 있는 서부 검역소에서 이곳 공항으로 차량을 통해 옮겨졌다.

동물보호운동가인 피난 초티레라니는 “군이 통제하는 우타파오 공항은 동물보호론자와 언론의 접근을 차단했다”며 “내일 호주 대사관에서 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태국과 호주 동물보호운동가들은 한 목소리로 코끼리들의 호주행이 고통만 줄 뿐이라고 반발해왔다.

태국산 코끼리 보호운동단체인 ‘아시안 코끼리의 친구들’의 설립자인 소라리다 살왈라는 “코끼리는 태국의 상징”이라며 “그들이 다른 나라에 가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으며 그들이 감옥같은 시설에 있기를 바라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또다른 야생생물 보호단체인 ‘야생생물기금 타이랜드’ 측은 ‘멸종위기종 야생생물 거래에 관한 국제협

약 (CITES)에 따라 이들 코끼리가 야생 상태에서 포획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될 때까지 호주행을 유보시켜 주도록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DNA 검사 실시를 요구했다.

태국 천연자원.환경부는 이들 코끼리의 호주행이 CITES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며 중국산 팬터를 수입해 북부 치앙마이 동물원에 입주시킨 사례에서 보듯 오히려 연구와 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 동물보호단체의 DNA 검사 요구에 대해서는 이들 코끼리의 부모 DNA를 찾는 것 자체가 어렵다며 “이런 종류의 DNA검사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태국 정부는 작년초 치앙마이 동물원과 치앙마이 ‘나이트 사파리’ 용으로 호주에서 모두 4쌍의 코알라를 들여오는 대신 태국산 코끼리 8마리를 보내기로 계약을 맺었었다.

연합뉴스 / 2006년 7월 30일

동물원 사육사 코끼리에 밧혀죽어

동물원 코끼리가 먹이를 주던 조련사를 공격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고 로이터 통신이 7월 21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남서쪽으로 약 96km 떨어진 호엔월드 교외에 위치한 코끼리 보호소의 여성 조련사인 조앤나 버크(36)는 생후 40년된 ‘윙키’라는 이름의 코끼리에 먹이를 주던 중 윙키에게 밧혀 그자리에서 숨졌다. 버크와 함께 먹이를 주던 다른 직원도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미얀마에서 태어난 윙키는 몸무게가 3.4t이나 되는 암컷이며, 과거 위스콘신주 매디슨의 헨리 빌라스 동물원 등에 있을 때에도 직원과 관람객을 공격해 상처를 입혔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5년 문을 연 이 보호소는 늑고 병든 코끼리 19마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이후 인 7월 22일 7명으로 구성된 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윙키를 안락사시킬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세계일보 / 2006년 7월 23일

간질치료제, 출생결함 유발 위험

간질치료제에 쓰이는 항경련제가 유산이나 결함아 출산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또 하나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플로리다 대학 의과대학 신경학교수 김포드 미도 박사는 ‘신경학(Neurology)’ 최신호(8월8일자)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1994~2004년 사이에 항경련제를 복용한 임신여성 3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분석 결과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힌 것으로 헬스데이 뉴스가 8월 8일 보도했다.

미도 박사는 항경련제 중에서 발프로에이트(상품명 데파콘)를 복용한 여성이 유산 또는 결함아 출산율이 20%로 가장 높았으며 페니토인(딜란틴) 11%, 카르바마제핀(테그레톨, 카르바트론) 8%, 라모트리진(라믹탈) 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일부 심리장애 치료에도 쓰이는 발프로에이트가 이런 위험이 가장 높은 이유는 확실치 않으나 체내의 DNA와 단백질과 결합하는 분자를 형성해 발달중인 태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미도 박사는 말했다.

이 연구결과에 대해 조지타운 대학 의과대학 신경과교수 콜람 모타메디 박사는 가임여성의 경우 발프로에이트의 사용을 제한해야 하겠지만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낮은 단위를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른 항경련제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2006년 8월 9일

中 '과시성 애완견' 유행

핵가족과 시장경제가 자리잡은 중국에서 애완견 기르기 붐이 일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8월 8일 중국에서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은 '부의 상징' 일 뿐 아니라 대리 가족으로도 사랑받는다고 전했다.

베이징(北京)시에 등록된 애완견은 55만 마리로 한해 동안 약 15% 늘었다. 600위안(7만2,500원)~1,200위안(14만5,000원)의 등록비 부담 때문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실제 애완견 수는 베이징에서만 150만마리, 전국적으로는 1억5,000마리에 달한다. 천박한 자본주의의 상징으로 금기시됐던 애완동물의 보편화는 중국 사회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개혁·개방의 혜택을 받고 자란 젊은이 사이에서 애완견은 유행처럼 퍼지고 있다. 지난주 포메라니안종 강아지를 구입한 여대생은 "TV에 나오는 인기스타들은 모두 애완견이 있다"며 "애완견 기르는 트렌드"라고 말했다. 그의 아버지는 '애완동물(pet)'이란 단어조차 없던 문화대혁명기에 성장기를 보냈지만 "지금은 애완견을 기를 여유가 있을 정도로 부유해졌다"고 한다. 당국의 강력한 산아제한으로 형제자매가 없는 외톨이 자녀나 배우자를 잃은 부모의 적적함을 달래기 위한 반려동물로도 애완견은 인기다.

하지만 농촌에선 광견병 예방 차원에서 개들을 집단 도살하는 등 도농 빈부 격차 만큼이나 견공에 대한 대우도 극과 극이다. 지난 8개월간 광견병 감염으로 16명이 사망한 산둥(山東)성 지닝(濟寧)시는 광견병 발생지 반경 5km내 개 50만마리를 도살할 계획이다. 윈난(雲南)성 성도 쿤밍(昆明)에서 차로 3시간 거리의 무딩(牟定)현에서는 광견병으로 3명이 숨지자 지난달 말 현내 5만마리 개를 도살했다. 무딩의 개 집단 도살 사건은 중국 최대 포털 시나닷컴에서 1만5,000여 댓글이 붙을 정도로 동물애호찬·반론자들의 인터넷 토론을 불붙였다.

한국일보 / 2006년 8월 8일

인도는 지금 개(犬)와의 전쟁 중

인도가 개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현지 언론은 웨스트벵갈주가 주인 없이 길거리를 배회하는 수만 마리의 개를 잡아들이기 위한 대대적인 작전에 돌입했다고 8월 3일 보도했다.

이는 인간 광견병 환자의 수가 전혀 줄어들지 않는 반면 백신은 수요의 20%에 불과하기 때문.

웨스트벵갈의 주도인 콜카타 시내에만 10만 마리의 개가 돌아다니고 있으며, 이 가운데 6만5천여 마리는 광견병에 걸린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웨스트벵갈에서는 매년 평균 4만여명이 개한테 물려 병원을 찾고 있지만 미리 광견병 예방 주사를 맞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게 보건당국의 설명.

웨스트벵갈의 K.C.바루이 보건국장은 “악화일로에 있는 광견병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의 개체수를 줄이는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백신도 부족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개한테 물려도 1천500루피(약 3만원)나 하는 치료비용을 감당하지도 못한다”고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연간 광견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세계적으로 5만명에 이르는 가운데 인도인이 절반 가량인 2만500명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인도의 경우 보고가 되지 않는 사례가 워낙 많아 실제 광견병 사망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도에서는 전국 어디서나 도로와 주택단지 등을 떼지어 돌아다니면서 행인을 물거나 승용차와 오토바이를 향해 덤비는 개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수의사들은 광견병에 걸린 개한테 물린 사람이 한 시간 내에 치료 절차에 들어가지 않으면 빠르면 며칠, 늦어도 몇주 내에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WHO 콜카타 사무소의 프라바카르 차테르지는 “거세수술 등을 통해 개의 개체 수를 통제하는 것 말고는 인도의 광견병 사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2006년 8월 3일

살인적 무더위, 차 안에 개 방치하지 마세요

올해 최고의 기온을 기록했던 지난 7월 19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브루즈 가든 센터 주차장에서 뉴파운드랜드 종의 개 두 마리가 차 안에 있다가 한 마리는 숨지고 현재 다른 한 마리는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英 BBC 뉴스는 사고 경위를 밝히며 주인이 자신의 차 안에 창문 하나만을 열어둔 상태로 화물칸에 개들을 네 시간 정도 방치했고 그 이후 차 안의 온도가 섭씨 34도까지 치솟아 이러한 사고결과를 초래했다고 전했다. 이 사건을 접한 경찰과 R.S.P.C.A.(이하 영국동물학대방지협회; 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는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애완동물을 차 안에 방치하고 자리를 비우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영국동물학대방지협회의 스테판 달리는 “동물을 이러한 환경에 두는 것은 매우 잔인한 일이다. 차량 안의 온도는 매우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차창을 열어놓고 물을 제공하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더운 날에는 절대 애완동물을 차 안에 두어서는 안 된다”며 경고했다. 죽은 개들의 주인은 영국동물학대방지협회에 의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 받

고 있으며, 처벌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한편, 영국동물학대방지협회는 다음과 같은 권고 사항을 만들어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을 상대로 배포하고 있다.

- *더운 날 차 안의 온도는 최고 49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 *만약 차 안에 있는 자신의 동물이 숨을 헐떡거리면 뜨거운 날씨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 *차 안에 동물을 두는 것은 매우 빨리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
- *그늘에 차량을 주차하더라도, 태양의 위치는 변할 수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 *차창을 열어놓고 물을 주는 것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만약 동물이 온도로 인해 힘들어한다면 찬물로 샤워를 시켜주고, 의식이 없거나 심각한 상태라면 즉시 수의사와 상담을 해야 한다.
- *이런 상태에 동물을 방치하는 것은 경찰에 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조선일보 / 2006년 7월 23일

국내 소식



❶ 얼음! 너무 시원해!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불볕더위가 시작된 30일 경기 용인 에버랜드 동물원의 북극곰이 과일이 든 얼음을 꺼안은 채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

연합뉴스 / 2006년 7월 17일 뉴시스 / 2006년 7월 30일



❷ KTF, 애견포털 '멍멍친구' 서비스

애견관리 휴대폰으로

KTF(대표 : 조영주)가 8월 8일 애완견에 사람과 같이 번호를 부여하고, 무선인터넷 핫 넘버 서비스를 통해 애완견의 분실방지 및 생활관리를 할 수 있는 애견포털 서비스 '멍멍친구'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서비스 가입자에게는 고유의 애견번호가 새겨진 '멍멍친구 목걸이'가 무료로 배송된다. 이 목걸이를 찬 애완견이 분실 됐을 경우, 습득자가 목걸이에 새겨진 애견번호를 휴대폰에 입력한 후 무선인터넷 매직엔 키를 누르면 분실자의 개인 페이지로 접속돼 애완견을 찾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특히 개인정보 노출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온·오프라인의 애견 관련 모든 정보를 통합한 애견맞춤 포털 서비스도 제공한다.

디지털타임스 / 2006년 8월 9일